01□□□_01□□□ 12. 7. 19. □□ 7:25 Page 5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3호 2012.06. pp.5~35

홍석중의『황진이』에 나타난 상징 연구

- '돌' 과 '첫물 앵두' 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mbols in *Hwayng Jin-Yi* by Hong Suk-Joong

김미나(단국대 박사과정)

차 례

1. 서론
2. 『황진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방법
3. 홍석중의 『황진이』에 나타난 상징과 모티프 연구
1) '돌' 에 나타난 상징성
2) '첫물 앵두' 에 나타난 상징성
4. 결론 : 상징과 통일문학으로의 가능성

1. 서론

북한에서의 역사소설 개념은 루카치[1)]의 역사소설론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띤다. 북한문학에서의 역사소설은 "허구라는 소설장르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소설로 재현된 역사 그 자체로 인식, 역사소설의 목표 또한 소설을 그대로 믿게 하는 것이다. 지배층의 정치적, 체제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지배 권력의 핵심인 '수령' 중심"[2)]으로 진행된다. 이는 민중을 내세운다는 루카치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일관된 성격을 유지하던 기존의 북한 역사소설과 다른 성격의 작품이 등장한다는 것은

1) 루카치가 정의한 역사소설이란, 역사적인 사실을 제재로 현재적 의의가 담기고, 진실하고 구체적인 묘사가 되어야 하며 주인공 역시 민중들의 삶을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2) 이상숙, 「역사소설 작가로서 홍석중」, 『살아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92쪽.

01□□□_01□□□ 12. 7. 19. □□ 7:25 Page 6

주목할 사건이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이 실제 일어났다.

『황진이』는 2002년 북한의 문학예술출판사에서 처음으로 간행, 같은 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2004년 남한에서 발간되었다. 발간되기까지의 과정만큼이나 홍석중의 『황진이』는 기존의 북한 역사소설과의 차이점을 다수 가지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물론 남한에서까지 주목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홍석중은 최초로 남한의 문학상[3]을 수상한 북한 작가가 되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이 기존의 북한문학과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문학성까지 인정받았기에 있을 수 있는 결과였다. 이후 『황진이』는 영화[4]로 제작되어 전국의 상영관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기도 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그의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황진이』는 영화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끊임없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에 지속적으로 거론됨은 물론 '황진이' 연구에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결과는 겉핥기식으로 기존 작품들과의 차이점을 든다던가, 정치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등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 작품에 접근해보도록 하겠다.

---

3) 『황진이』를 통해 홍석중은 2004년 최초로 남한의 문학상을 받은 북한작가 되었다. 그는 창작과비평사에서 주관하는 제 19회 만해문학상에 선정되었으며, 실제 상금은 2005년에 전달되었다.

4) 영화 〈황진이〉는 홍석중의 『황진이』를 원작으로 2007년 씨네2000이 제작, 장윤현 감독, 송혜교, 유지태 주연으로 제작 · 발표되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황진이의 진실된 모습을 담아냈다고 홍보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개봉 이후 홍석중 작가는 자신의 작품과는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고, 관객수 또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개봉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KBS2에서 방송된 하지원 주연의 드라마 〈황진이〉와 비교 대상이 되기도 했다. 비록 놀라운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색다른 황진이를 그려냈다는 점과 북한소설을 원작으로 삼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주목을 받았다.

01□□□_01□□□ 12. 7. 19. □□ 7:25 Page 7

2. 『황진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방법

홍석중의 『황진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으로 시도되었다. 그 중 장점으로는 뛰어난 문체와 어휘, 속담의 풍부한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어휘사전[5]이 따로 발간되거나 작품에 등장하는 속담에 관한 연구[6]가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생동감 넘치는 등장인물이 돋보인다는 평도 많았다.

황진이를 다루었던 기존의 많은 작품들[7]과는 다르게 홍석중의 『황진이』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놈이, 괴똥이, 이금이, 상직할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사의 큰 줄기는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어우야담』 등의 각종 사료를 기초로 하였기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인물 때문에 창조된 각종 사건 등이 유독 눈에 띈다. 그 중 양민이자 화적인 '놈이'의 등장은 서사의 큰 틀을 좌우하게 된다. 황진이가 양반이 아니라 화적의 우두머리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양반과 사대부가 비교 대상의 자리를 차지한다. '놈이'의 숭고한 사랑은 육체만을 원하는 양반들의 모순된 행태를 비꼬는 하나의 장치로써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황진이』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정의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물론 남북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사랑'은 충분하다. 하지만 '놈이'는 '산인간'[8]의 역할 또한 수행한다. 북한사회가 요구하는 "강한 인민

---

5) 대훈닷컴에서는 『황진이』의 말미에 부록처럼 어휘풀이를 정리해 실었다. 하지만 이로는 부족했는지 어휘사전을 따로 구분하여 그 풀이를 더해 출간하였다. 기존의 장편 역사소설과 관련되어 출간되던 책들과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라 특별할 것은 없으나, 대상이 북한의 언어라는 점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민속어 등에 대한 풀이도 더해졌다.

6) 민충환, 「『임꺽정』과 홍석중 소설에 나타난 우리 말」, 『살아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68~86쪽.

7) 황진이를 다룬 역사소설은 그 수가 많다.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이태준, 『황진이』, 동광당서점, 1946. ; 정한숙, 『황진이』, 정음사, 1955. ; 박종화, 「황진이의 역천」, 『새벽』, 1955.11. ; 안수길, 『황진이』, 홍문각, 1977. ; 유주현, 『황진이』, 범서출판사, 1978. ; 정비석, 『옛날옛적에 한 여자-옷을 벗은 황진이』, 남향문화사, 1982. ; 최인호, 『황진이』, 동화출판공사, 1986. ; 김남환, 『황진이와 달』, 복지문화사, 1986. ; 최정주, 『황진이』, 산신각, 1993. ; 김탁환, 『나, 황진이』, 푸른역사, 2002. ; 전경린, 『황진이』, 이룸, 2004.

01□□□_01□□□ 12. 7. 19. □□ 7:25 Page 8

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성이자 영웅"[9]이며 여성을 교화시켜 "가부장성"[10]을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고, '놈이'는 이에 부합하는 인물인 것이다.

기존의 북한문학에서는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홍석중의 『황진이』에는 '놈이'와의 사랑이야기는 물론 사대부 양반들과의 성행위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는 다른 북한문학과는 변별적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자유로운 창작방법의 시도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의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물론 성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체면이나 지위를 벗어던진 양반의 이중성과 양면성을 비판한다는 의도가 담겨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판 또한 가해졌다. 성행위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내용은 북한의 이념과 동일하며 "본성에 충실한 건강한 육체성 옹호"[11]라는 창작 방향과 상통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이념이 드러나 있다며 몇몇 부분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불교를 배척하는 모습과, 벽계수 관련 일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벽계수 관련 일화는 "핏줄에 대한 유전의식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표현"[12]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반해 같은 장면을 "선민의식에 일침을 가하고, 유전학적 닮은꼴을 통해 '뿌리의식'과 '동질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통일문학사로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13]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

8) 북한의 문학에는 '산인간'의 존재가 반드시 등장해야만 한다. 인간세계의 위대성을 깊이 탐구하여 산인간으로 형상화하여야 감명 깊은 인정세계가 펼쳐지고 인간학다운 작품이 창작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산인간이 없으면 형상도, 문학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태상, 「생동한 인물성격 창조와 작가의 창발성」, 『황진이 1』, 대훈닷컴, 2004, 333쪽. ; 김흥섭, 『소설창작의 기교』, 평양: 문예출판사, 1991, 179쪽 참조.

9) 전현래, 「'황진이'소재 역사소설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83쪽 참조.

10) 김경연, 「황진이의 재발견, 그 탈마법화의 시도들」, 『살아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178쪽.

11) 김재용, 「운우의 꿈을 깨니 일장춘몽이라……」, 『황진이 2』, 대훈닷컴, 2004, 325쪽.

12) 오태호, 「홍석중의 『황진이』에 나타난 낭만성 고찰」, 『살아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55쪽 참조.

13) 박미현, 「홍석중의 역사소설 『황진이』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6쪽 참조.

01□□□_01□□□ 12. 7. 19. □□ 7:25 Page 9

언급된 부분들을 제외하고도『황진이』가 통일문학을 지향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의 의견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표준어와 문화어가 공존함으로써 분단 이전의 순수 우리말을 찾아볼 수 있다거나 분단 이전의 과거를 배경으로 그려내 공통된 정서를 자극하고, 동일한 시대적 감각을 상기한다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세시풍속은 물론 조선 중기의 다양한 풍속도에 대한 묘사와 송도, 묘향산, 금강산 등의 묘사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동일한 관점에서 문학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적 관점보다는 과거로 돌아가 공통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황진이』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문학으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음은 물론이다. 비록 전쟁을 치른 후 분단이 된 상황이지만 같은 역사를 배우고, 동일한 세시풍속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영원히 분단만을 논하고 있을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분단 이전의 과거를 배경으로 하거나, 역사소설이 아니라도 통일문학을 위해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상징'에 관한 연구라면 동일한 정서를 지니고 있는 현재에 있어 충분히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본고에서는 홍석중의『황진이』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통일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상징 연구에 주목했다. 작품에서 반복되어 드러나는 상징과 모티프인 '돌'과 '앵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연구와 통일문학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홍석중의『황진이』에 나타난 상징과 모티프 연구

상징은 인간이나 사물, 집단 등의 복잡한 개념을 단순하게 표현하도록 해준다. 때문에 대체적이고 함축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

01□□□_01□□□ 12. 7. 19. □□ 7:25 Page 10

로 비둘기나 십자가의 상징을 들 수 있는데 문학 작품 속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문학 속 상징은 작품의 주제나 성격을 보다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징들이 있는 반면, 주제와 의미를 함축한 채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상징은 그 의미를 찾기 위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상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미학적인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다. 상징 연구는 단순하게 한 가지 뜻을 지칭하고 찾는데 그치지 않는다.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다양성만큼 연구의 활용도도 넓다고 할 수 있다.

모티프는 상징만큼은 아니지만 작품에 등장해 사건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물건이나 자연물 등을 지칭하며, 이 또한 상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성격을 대변하거나 함축적으로 표현하는데 쓰인다.

『황진이』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은 물론, 우리 민족만이 알 수 있는 다양한 상징과 모티프까지도 나타나 있다. 각종 풍속이 재현된 부분이나 자주 등장하는 자연물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에 반해 관련한 연구를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때문에 관련 연구에 주목하여 작품을 분석해본 결과, 그 중에서도 '돌'과 '앵두'가 남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돌'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앵두'는 내용은 물론 풍속에 관련된 연구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1) '돌'에 나타난 상징성

'돌'은 태초부터 존재해왔던 하늘, 땅 등과 함께 생명의 기원을 상징한다. 또한 형태나 모양의 다양성은 물론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 덕에 때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바위, 자갈 등 자연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과 인간에 의해 가공된 것 등 크기와 모양에 따라 내포한 의미도 달라진다.

01□□□_01□□□ 12. 7. 19. □□ 7:25 Page 11

따라서 돌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지만 나라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공통되거나 비슷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서양의 경우에는 그리스 신화를 비롯한 많은 이야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원·탄생 설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황진이』에서도 여러 형태의 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스토리의 진행과 내용의 흐름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양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가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마방집 괴석

작품의 첫 배경은 곰보네 마방집이다.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등장인물이 직·간접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직접 등장하는 놈이와 괴똥이의 외형 설명은 물론 성격까지도 확연하게 드러나며, 황진이를 둘러싼 소문과 시대적 배경까지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시작과, 마무리되는 사건의 주된 장소이기도 하다.

『황진이』에는 한번 거론된 인물이나 장소 등이 뒷부분에 반드시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개연성과 완결성을 획득한다. 마방집 또한 이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이 장소에서 유독 눈에 띠는 괴석 또한 그 의미가 남다르다.

> 사람들은 이 마방집의 장사가 잘되는 까닭을 이 집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오가는 길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중송아지만한 괴석 때문이라고들 말했다. 이를테면 이 집의 재산을 늘여주는 업구렝이가 그 돌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
> 연산군이 쫓겨나던 해였다. 그는 온 나라에 진기한 화초와 희귀한 괴석들을 올려 보내라는 전교를 내렸었다. 황해도의 어느 고을에선가 근 백여 명의 장정들이 그 바쁜 농사철에 제 집 농사는 다 내던지고 갖은 고생을 다해가며 이 괴

01□□□_01□□□ 12. 7. 19. □□ 7:25 Page 12

석을 굴대로 굴려서 마방집 앞까지 가져다 놓았는데 그만 반정이 일어나고 임금이 내쫓겼다. 그 소식을 들은 부역군들은 얼씨구 좋다 다 달아나버려서 결국 대궐 후원에 들어가 앉았어야 할 이 팔자 사나운 괴석만 마방집 대문 앞에 덩그라니 남아 있게 되었다.

지금 주인인 곰보의 죽은 아비가 기왕년에는 아주 장사 리치에 밝기로 송도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였다. 그는 일군들을 사서 괴석 주위의 땅을 파고 자그마한 물 웅뎅이를 만들었다. 돌이 물을 빨아올리자 우에 이끼를 입히고 움푹움푹 패운 곳마다 보기 좋은 풀을 심어 제법 운치 있는 구경거리를 만들어놓았다.

마방집으로서는 벌거벗고 칼을 찬 것같이 어울리지 않는 이 괴석이 그처럼 유명해져서 사람들을 끌어당길 줄이야. 소문이 퍼지자 지어는 괴석에 벽이 있는 량반님들까지 드문히 구경을 나오고, 지어낸 말이였는지는 몰라라 이 괴석을 서울로 날라 간다느니 부중 어디로 떠 옮긴다느니 하는 뒤소리까지 떠돌았으나 지금 30년째 끄떡없이 업구렝이 노릇을 하며 이 집 재물을 늘여주고 있었다.

— 7~8쪽(1)[14]

연산군 덕에 마방집 앞에 놓이게 된 괴석은 분명 그 괴이한 모양새가 시선을 끌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들여 자리를 옮기게 되었을 것이다. 연산군이 수석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관련한 취미활동은 현대인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돌 자체가 지닌 가장 일반적인 성질인 "영속성, 힘, 굳건함"[15]을 표현하기 위한 예술적 활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괴석 또한 물과 풀로 장식되어 볼거리가 되었다.

마방집 괴석은 특히 재물과 연관되어 언급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존

14) 홍석중, 『황진이 1』, 대훈닷컴, 2004, 7~8쪽. (본고에서 인용되는 작품의 본문은 모두 2004년 대훈닷컴에서 발간된 홍석중의 『황진이』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후의 인용구에 대한 출처는 편의상 페이지수와 권별 구분으로 간소화하여 표기하도록 하겠다. 또한 북한소설인 점을 감안해 표준어에 어긋나는 표기더라도 원문에 수정을 가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15) 잭 트레시더, 김병화, 『상징 이야기』, 도솔출판사, 2007, 163쪽.

01□□□_01□□□ 12. 7. 19. □□ 7:25 Page 13

재하는 업(業)신앙과 관계가 있다. 업은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는 수호신"[16]을 일컫는 말로 보통은 뱀이나 구렁이 등의 동물을 지칭하는데 그 형태는 다양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제의적 성격이 짙은 미신의 일종이다. 등장인물들은『황진이』속에 드러난 정서를 통해 본문에 언급된 "업구렝이"와 괴석이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고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업신앙에 해당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주의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돌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곰보네처럼 따로 관리에 신경을 쓰기도 한다.

여러 마방집들 중에서 유독 곰보네 집만 손님이 많은 것은 곰보의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괴석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신앙은 특정한 효능을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괴석 덕분에 곰보네에 재물이 모인다는 언급은 뒤이어 또 다시 등장하게 된다. 한참을 등장하지 않던 배경이던 마방집이 놈이의 죽음과 관련된 주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 이렇게 되여 일개 마방집 주인인 곰보가 하루아침에 희귀한 보물을 얻어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할 만한 동방갑주가 되였다. 이제 와서는 그 누구도 이 마방집 앞에 놓여 있는 괴석 안에 업구렝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기야 그 돌 속에 숨어 있는 업구렝이가 복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면 그런 놀라운 행운을 무엇으로 설명하랴.
>
> — 151~152쪽(2)

곰보가 마방집 마구간 자리의 땅을 파보니 그곳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쉽게 찾아오지 않는 엄청난 행운이 그동안의 재복에 뒤이

16)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01□□□_01□□□ 12. 7. 19. □□ 7:25 Page 14

어 나타나자 사람들은 더더욱 괴석에 집중하게 되었다. 단순한 돌 하나가 그 상징 덕에 재물과 행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다. 작가 또한 이를 미신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후 곰보는 이 보물 덕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를 괴석 때문이라고 따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괴석은 단지 재물을 끌어오는 업으로 그 의미를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2) 산대바위

마방집의 괴석이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데 그쳤다면, 산대바위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그 상징성을 드러낸다. 산대바위는 마방집에서 서사가 시작되던 중 놈이에 대한 소문이 언급될 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된다.

> "전달에 여기 이 또복이하구 글방에서 돌아오다가 함께 지남산에 꽃 꺾으러 올라갔었는데, 그때 놈이란 사람이 곱게 생긴 웬 색시하구 산대바위 밑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이애 또복이는 그 뒤에두 여러 번 그 두 사람을 산대바위 근처에서 봤답디다. 그렇지 또복아?"
>
> — 16쪽(1)

놈이와 한 여인이 산대바위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는 후에 관련 내용이 등장하면서 단지 소문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게 된다. 처음 언급되면서는 그저 소문인양 치부되었던 내용이 복선이 되어 작품의 후반부에는 황진이의 친어머니인 현금과의 만남이었음이 밝혀지는 것이다.

현금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장면의 배경 또한 산대바위이다. 그녀를 발견한 이는 장덕이라는 색주가의 포주였으며, 현금은 그곳에서 기생생활을 하다 죽음을 맞게 된다.

01□□□_01□□□ 12. 7. 19. □□ 7:25 Page 15

일행이 산대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홰를 들고 앞장을 섰던 학이가 무춤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무더기로 앉은 진달래 포기 사이에 무엇인가 산짐승 같은 것이 옹송그리고 누워서 애처로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68쪽(1)

현금이 장덕에게 발견되고 기생생활을 하게 되면서, 황진이의 삶 또한 어머니의 삶을 되물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산대바위는 '만남'의 장소로 기능하게 된다. 놈이와 현금, 장덕의 만남은 뒤따를 내용에 대한 운을 띄운 것에 불과할 정도이다. 물론 이후에도 같은 의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이 죽고 황진이가 자신이 서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놈이는 그녀를 산대바위로 안내한다. 놈이는 그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현금과의 만남에 대해 언급한다. 이는 앞선 소문에 대한 해명이며 현금이 황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놈이는 곰이 웅크리고 앉은 것 같은 산대바위 앞에 이르자 진이를 돌아보며 바위를 가리켰다. 진이는 할멈의 손을 놓고 바위 밑으로 바짝 다가갔다. 높이가 10여 장은 남아 될 커다란 바위가 우뚝 솟았는데 아직 산중턱이건만 이 바위 밑에 서니 자를 대고 그은 것 같은 부중의 아홉 거리며 성안에 콩나물 박히듯한 크고 작은 집들이 손금처럼 내려다보였다. 진이네 집의 후원은 바로 발밑에 있었다. 별당에 혼자 떨어져서 툇마루에 나와 앉은 이금이가 목을 뽑아 들고 그들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놈이의 궁근 목소리가 침울하게 울렸다.

"올 3월 말게쯤 되는가 봅니다. 어느 날 저물녘에 소인이 무슨 일 때문인지 이 산에 올랐다가 이 바위 밑에서 처음으루 아씨 자당을 뵈웠습니다. 첫눈에 벌써 이상한 생각이 듭디다. 꼭 넋을 잃은 사람같이 바위 아래 오도카니 앉아서 아씨가 계신 별당 쪽을 정신없이 내려다보는 게 아니겠나요.

01□□□_01□□□ 12. 7. 19. □□ 7:25 Page 16

그날은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났구, 왜 그런지 짚이는 데가 있어서 다음날 다시 여기루 올라와봤습죠. 아니나다를가 자당께서 바위 밑 그 자라에 또 앉아 계시는구먼요. 마침 아씨께서 안채에 납셨다가 별당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이 내려다보였는데 자당께서는 아씨를 띄워 보시자 벌떡 일어나시더니 외마디 고함을 지르고는 몇 발자국 달려 내려가시다가 나무를 붙안고 쓰러지며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십디다.

자당께서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번지는 날이 없이 여기루 오르셨습니다. 소인두 사연이 궁금해서 자주 여기에 오르다보니 자연히 서로 얼굴이 부딪치게 됐구, 얼굴이 몇 번 부딪치는 동안에 스스럼이 없어져서 이야기를 주고받게끔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당께서는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두 당신이 아씨의 친어머니란 말슴을 한마디두 입에 올린 일이 없었습니다.

— 174~175쪽(1)

이 장면을 통해 독자들은 이제까지 언급만 되었던 산대바위에 대한 설명과 장소적 특성까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이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를 찾아갔던 이유 또한 알게 되는데 높은 곳에 위치한 산대바위에서 황진이가 거취를 하는 후원을 자세하게 살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금이 한 번이라도 더 진이의 모습을 보고자 찾았던 산대바위는 딸을 향한 애끓는 어미의 모정과 모성애를 상징한다. 무한한 애정으로 자식을 살피는 모정이 산대바위에 이입되는 것이다. 또한 높은 곳에 위치한 만큼 양반집 규수로 살고 있는 딸과 한낱 기생에 불과한 두 여자의 계급적 거리를 뜻하기도 한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바위는 그 모양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원성과 불변성을 상징한다. 현금의 감정이 이입된 산대바위는 변치 않는 어미의 모정에 대입된다. 진이에 대한 현금의 모성이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살 수 밖에 없었음에도 변치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이 산대바위의 웅장함으로 표현된 것이다.

01□□□_01□□□ 12. 7. 19. □□ 7:25 Page 17

돌이 나무와 함께 등장할 경우에 "돌은 영속하는 닫힌 존재, 나무는 변하며 확장하는 존재를 상징"[17]한다. 산대바위와 함께 등장하는 나무처럼 높은 곳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우주의 축"[18]을 상징하기도 한다. 산대바위처럼 우직하게 자리해 지켜보는 것으로 자제되던 현금의 모정이 나무를 만나게 되면서 변화, 감정이 극대화되어 분출되고 있다. 그녀의 울음은 애달픈 모정과, 가까이 있으면서 만날 수도 스스로를 밝힐 수도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산대바위는 이전의 만남에 이어 현금의 슬픈 만남과 모정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어 다시 등장하는 산대바위는 현금이 자신의 의지를 빌어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장소로 분하게 된다. 현금이 죽음과 조우하는 또 다른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 이제 달포는 되였습니다.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깨여보니 꼭두새벽인데 마음이 별루 설뚱한 게 이상해지더구먼요. 미심쩍은 생각에 날두 채 밝기 전인데 부랴부랴 여기루 올라와봤습죠. 아, 글쎄 자당께서 각혈을 하시구 피투성이가 되여 바위 밑에 정신 잃구 쓰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일이 안 될라니 전날 낮에 소인이 비추심으로 성밖에 나가 있어서 여기 와보질 못했거든요. 글쎄 그동안에 이런 변이 생길 줄이야……
>
> — 176쪽(1)

이상한 예감에 놈이가 꼭두새벽부터 찾아간 산대바위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현금이 있었다. 그녀는 이후 별다른 행동이나 말을 남기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된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산대바위로 설정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도 변치 않는 어미의 모성애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의 등장과 퇴장은 모두 산대바위가 배경이

17)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사, 2009, 158쪽.
18) 위의 책.

01□□□_01□□□ 12. 7. 19. □□ 7:25 Page 18

된다. 이로써 응축된 모정이 완벽하게 산대바위와 동일시된다.

현금이 죽음을 맞게 되면서 산대바위 또한 내내 등장하지 않다가 후에 놈이가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언급된다.

> 저는 먼빛으로나마 아씨의 모습을 한번이라도 뵈옵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후원 안에 계시는 아씨를 찾아뵈올 구실이 매일 생기는 것도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후원의 별당이 내려다보이는 자남산 중턱의 산대바위에 올라가는 것이 버릇처럼 되였습니다. 설혹 아씨의 모습을 뵈옵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숲속에서 반나마 가리워진 별당 지붕을 내려다보면 한결 마음이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
>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루도 건늠 없이 산대바위에 올라 후원 속 별당 쪽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는 아씨의 친어머님을 만나게 되였습니다.
>
> —301쪽(1)

앞서 놈이가 현금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현금은 진이를 보기 위함이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으나 놈이의 등장 이유는 얼버무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에 놈이가 산대바위까지 가게 된 이유가 그의 언문 편지를 통해 밝혀지게 된다. 오랜 기간 진이를 사랑해왔던 놈이는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확인한 이후 그녀의 앞에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대신 현금과 마찬가지로 진이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산대바위에 매일같이 올랐던 것이다.

이로써 산대바위는 현금의 모정에 이어 놈이의 사랑을 상징하게 된다. 작품의 중반부에 진이가 놈이의 사랑에 대해 오해를 하는 장면이 나오나, 산대바위에 놈이의 사랑이 이입된 만큼 그의 사랑이 끝까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산대바위는 단순한 배경으로만 등장한 것이 아니다. 하나의 자연물이던 바위가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이입되면서 일반적인 상징을 넘어 또 다

01□□□_01□□□ 12. 7. 19. □□ 7:25 Page 19

른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이다.

작품 전체에 언급되는 돌의 수는 상당하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전부를 언급하기보다 짧게 등장하더라도 남다른 상징이나 의미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선정하였다.

(3) 개천의 돌다리

> 우리 집에서 큰길루 건너가는 개천의 돌다리를 못 보셨소「 그 돌이 바루 고려 시절 부귀와 권세를 누리시던 임금님 릉의 망두석인가 본데 지금은 보구려, 뭇사람들의 발에 밟혀 무슨 꼴이 되였나. 그래두 그 돌사람을 세워놓을 땐 그게 천년이 가구 만년이 갈 줄 알았을 게거든. 그저 죽은 다음에는 파묻힐 땅 석자 가웃이문 충분한 걸 가지구 공연히……”
>
> — 148쪽(1)

임금의 무덤가에 곱게 모셔져 있어야하는 고려시대의 망두석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한갓 개천의 돌다리가 되어 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시대가 변하고, 양반이 장사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는 왕권이라는 배경조차 늘 밟혀야만 하는 돌다리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망두석이던 돌다리는 드높던 권세와 지위가 시간도 채 거스르지 못하는 부질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의 상징으로 팔각정 주춧돌을 들 수 있다.

(4) 팔각정 주춧돌

작품에 등장하는 팔각정은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진이는 물론 독자 또한 그 실물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를 찾아볼 수는 없다. 하지만 남아 있는 주춧돌로나마 그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진이가 살던 집의

01□□□_01□□□ 12. 7. 19. □□ 7:25 Page 20

역사는 최충헌이 살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는 고려시대에 악명 높았던 무신의 대표적 인물이다. 왕위에 앉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네 번이나 왕좌를 갈아치웠을 정도로 그의 권세는 드높았다. 그랬던 최충헌의 집이 화원에서 진이의 후원 산책로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원래 이 골목은 고려 무신 정권의 꼭지 노릇을 하던 최충헌의 집 자리였다. 최충헌이 망한 뒤 임금은 그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화원을 꾸려놓았다. 지금도 꽃골 막바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황진사댁 후원의 숲속에는 당시 아름다운 꽃밭 속에 앉아 있던 팔각정의 주춧돌이 반나마 흙 속에 묻혀 있어 숲속을 거닐던 이 댁 아씨 진이가 이따금 편리한 돌의자로 쓰고 있다. 바로 이 팔각정에서 고려의 충신 최영이 리성계에게 잡혀 모가지 없는 귀신이 되고 말았다.

리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뒤 그 화려하던 화원이 점차 황폐해지기 시작하였다. 언제부턴가는 세도 있고 재산 있는 집 담장이 야금야금 화원 속으로 터를 넓히기 시작하더니 불과 백년 사이에 꽃골이라는 이름만 남고 없어진 꽃밭의 무너진 팔각정 자리에 최영 장군의 원한이 서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 35~36쪽(1)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의 변화 기간이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폭은 상당하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제대로 기억조차 되지 못하는 인물들이 현대에 와서는 위인전이나 인물사전에 등재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최충헌이 팔각정에 올라 정사를 논하고, 술자리를 가졌을 법한 팔각정은 일부인 주춧돌만 남아 진이의 돌의자가 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거스르지 못했음은 물론 오히려 그 위세가 추락한 것과 같다. 시대를 쥐고 흔들었던 인물인 최충헌에 대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

01□□□_01□□□ 12. 7. 19. □□ 7:25 Page 21

다. 이는 아무리 권세와 명망이 높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간 앞에는 무력함을 드러낸다. 곧 남들 위에서 군림하려하고, 스스로를 내세우려 할 필요 또한 부질없음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다. 강성했던 고려에 대한 논의는 이성계의 나라 조선에 있어서는 양육강식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 이는 부국강성을 추구하는 북한의 이념과 맥락을 같이한다. 과거를 논하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를 위해 온 힘을 쏟는 것이 옳다는 입장은 당장의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의 정치 슬로건과 유사하다.

비록 고려는 패망했지만 진이의 후원은 분명 역사적인 장소이다. 이 위에 황진이의 역사가 덧씌워지면서 후원은 중첩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만약 후원이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자 현재까지 찾아볼 수 있는 장소라면 이 작품에서 언급된 만큼의 문화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춧돌은 진이의 돌의자이자 그녀의 사색의 공간이 된다. 그 위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혼인을 약조했다 파혼한 윤승지의 아들에게 처음으로 속내를 고백하기도 한다.

> 진이는 팔각정 주춧돌 우에 앉았다. 해는 서쪽 어배동 궁전의 기와마루 우에 걸려 있었다. 잘 자리를 잡느라고 새들이 모여들어 부산을 피우는 늙은 먹감나무의 푸른 잎새들이 록주옥처럼 반짝였다.
>
> —39쪽(1)

정혼자에게 처음으로 보내는 편지를 언급하면서 해당 부분은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진이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1인칭 관점이 된다. 파혼 이후에도 정혼을 했었다는 인연 하나에 의지해 진이는 그에게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 때 등장하는 정혼자는 후에 역적으로 몰려 놈이의 옥사 옆에서 피폐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권세 있는 양반으로 진이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파혼을 결정한 집안의 인물의 마지막은 처참하

01□□□_01□□□ 12. 7. 19. □□ 7:25 Page 22

기만 하다. 주춧돌 자체가 상징하는 권력의 허망함이 그를 통해서도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후 동일한 장소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때 주춧돌은 권력의 허망함보다는 사색의 공간으로써 기능한다.

> 언젠가 아씨께서 후원 담장 앞까지 바투 나오시여 한식경을 모과나무 밑에 앉아 계신 일이 있는데 그때 자당께서는 아씨가 앉아 계신 담 건너편 골목에 쪼그리구 앉으시여 그냥 소리 없는 눈물을 쏟으시는구먼요.
>
> — 176쪽(1)

혼인을 앞둔 진이가 주춧돌에 앉아 한식경 정도 생각에 잠긴 것으로 지나쳐버리는 장면이 다른 시점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녀가 정혼자에게 속마음을 고백하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인 현금은 담 밖에서 소리 없는 모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색의 공간이 모정을 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주춧돌은 그저 배경이 되었을 뿐이지만 그 속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 이는 장소적 기능이 강조되었음을 의미한다. 홍석중은 풍속 등의 재현에도 충실했지만 실제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 대한 묘사와 활용도 또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하마석(효자정문)

> 진이네 집의 정신 택호는 황진사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효자댁, 혹은 효자정문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진이네 집 대문 앞에는 울긋불긋 단청을 올린 효자정문이 서 있고 그 앞을 탈 것에 앉아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하마석이 박혀 있기 때문이였다.
>
> — 45쪽(1)

01□□□_01□□□ 12. 7. 19. □□ 7:25 Page 23

하마석은 한자 뜻 그대로 말에서 내릴 때 도움이 되는 돌이다. 하지만 『황진이』에 등장하는 뜻은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탈 것에 앉아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경계"한다는 풀이는 우선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하마석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하지만 표현 방법에 따라 그 뜻과 역할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이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석중은 후자를 강조하면서, 효자정문의 위세를 보다 드높이는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이로써 진이네 집 대문은 상대가 누가 됐던 탈 것에 앉아서 들어올 수도 없을 정도로 위엄 있는 장소이자, 예의를 갖추어야만 하는 공간으로 부각된다.

이 때 강조되는 것은 효자로서 정평이 난 진이의 아버지 황진사의 인간됨됨이이다. 하지만 실제 그의 모습은 효자는커녕 색(色)을 밝히느라 양반의 권위는 벗어던지기 일쑤인 추악한 인간이었다. 때문에 한껏 높여졌던 그의 위상과 됨됨이는 순식간에 추락을 맞게 된다. 또한 하마석은 물론 효자정문까지도 쓸데없는 허울이자 위선일 뿐이었음을 상징한다.

이 장면을 통해 당시 양반이나 사대부와 관련된 각종 허례허식이 난무했으며, 실제 그들이 천민이나 노비보다도 못한 인간성을 지녔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양반집 규수였던 진이가 기생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양반이라는 탈을 쓰고 살아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판단 또한 불가능하게 된다.

황진이와 관계되는 많은 양반과 사대부들은 대부분 겉으로 체면을 치르느라 바쁠 뿐 위선적이며 퇴폐적인 인간들에 불과하다.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인 황진사와 배다른 오빠를 시작으로 알게 된 이와 같은 사실은 결국 작품 전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양반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 때 무조건적으로 모든 양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간성에 따라 다른 것임을 증명하는 인물로 화담이 등장하게 된다.

01□□□_01□□□ 12. 7. 19. □□ 7:25 Page 24

(6) 꽃바위

그가 서재로 자리잡은 꽃늪은 원래 어머니의 거상중 3년 동안 시묘를 살던 곳이였다. 성거산에서 발원한 맑은 물이 '꽃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흘러 내려 문득 용암산 및 '꽃바위'를 에돌아 맑고 파란 못으로 고였는데 이 못이 화담, 즉 항간에서 이른바 '꽃늪'이다. '꽃바위' 밑에 삼간초옥이 있어 그 초옥이 바로 경덕의 서재요 서재 밑 못가에는 풀잎으로 지붕을 이은 조그마한 정자가 하나 있다.

— 104~105쪽(2)

화담 서경덕은 성리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음은 물론 그의 인간 됨됨이로 인해 학자이자 인간으로써 추앙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와 황진이의 일화는 비단 홍석중을 통하지 않더라도 송도삼절이라 일컬어지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 그에 대한 묘사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가 거취를 하고 있는 장소인 꽃늪은 3년 거상을 치를 정도로 효심이 깊은 화담이 직접 선택한 공간이다. 맑은 물이 꽃바위를 중심으로 연못을 이루었고, 이를 따서 "화담"이라는 별호가 만들어졌다. 그를 둘러싼 자연경관이 극도로 맑고 아름답게 표현되었음을 상기한다면 그의 인간성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꽃바위를 둘러싼 꽃내 물의 "맑고 파란"색은 그의 청렴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황진이가 원묵대사와 함께하는 공간은 어둡고 음침한 장소로 그려진다. 작가가 배경을 통해 관련된 인물을 묘사하는데 공을 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꽃늪과 화담의 중심에는 꽃바위가 있다. 꽃바위는 그를 둘러싼 자연경관의 아름다움들 가운데 우뚝 솟아 강직하고도 올곧은 서경덕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 이로써 꽃바위는 바위의 기본적인 상징에서 크게 벗어나

01□□□_01□□□ 12. 7. 19. □□ 7:25 Page 25

지 않으면서도, 인물에 대입되어 그 효과를 자아내는 장치가 된다.

앞서 언급된 '돌'에 관련한 상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	작품에서의 역할	상징적 의미
마방집 괴석	개연성, 완결성	재물, 업신앙
산대바위	만남의 공간	현금의 모정, 놈이의 애정, 불변성
개천의 돌다리	과거로의 회귀	권세와 지위의 부질없음
팔각정 주춧돌	역사, 사색의 공간	
하마석	양반의 위엄	양반의 허울과 위선
꽃바위	서경덕의 거주지	서경덕의 인간 됨됨이

〈'돌'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

기본적으로 언급된 '돌'의 공통점은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방집 괴석의 경우에는 남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속신앙 중 하나인 업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간이 활용되면서 작품에 개연성과 완결성이 획득되어 작품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자아내는데 일조했음을 알 수 있다. 산대바위는 '만남'과 '애정'을 상징한다. 돌의 일반적인 상징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의미를 더해 그 상징성을 보다 강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천의 돌다리와 팔각정의 돌다리는 시대를 비판하고 세태를 풍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황진이』가 단순히 풍속만을 재현하는데 치중한 작품이 아님을 보여준다.

2) '첫물 앵두'에 나타난 상징성

과일이나 열매에 있는 씨는 생명의 근원이다. 때문에 과일은 씨가 암시하는 "우주의 근원"[19]이라는 상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징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제철 과일을 천신하는 풍습이 있었다. 특정한 계절의 기점이

01□□□_01□□□ 12. 7. 19. □□ 7:25 Page 26

되는 날이나 명절 등 정해진 날에 지정된 과일을 천신하게 되는데 수리날은 앵두가 이에 해당한다.

> 수리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였다. 진이의 유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별당 툇마루에 나가보니 난데없이 참나무 잎에 싼 첫물 앵두가 놓여 있었다. 유모는 누구의 소행인지 영 가늠이 가지 않아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진이는 앵두를 보자마자 놈이가 가져다놓은 것이라고 대뜸 알아맞히였다. 바로 그날 밤 놈이는 황진사댁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
> — 24쪽(1)

수릿날은 음력 5월 5일, 즉 단옷날을 일컫는다. 앵두는 계절적으로 이 시기가 제철이며, 때문에 5월에 천신되는 대표적 과일이기도 하다. 또 임금이 신하들에게 앵두를 하사하기도 했으며, 조상이나 사당에 천신하기도 했다는 기록[20]이 남아 있다.

앵두는 그 특성상 쉽게 무르기 때문에 이동이 힘들어 앵두나무가 주변에 있지 않은 한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조금이라도 시기가 어긋나면 그 맛을 보기도 힘들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물이 든 앵두를 선물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황진이』에 등장하는 첫물 앵두는 놈이와 진이의 관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놈이가 진이에게 전달하는 감정이 함축되어 드러나는 대상이기도 하다. 놈이가 처음으로 진이와의 신분차를 확인하게 되면서 그는 진이의 곁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놈이는 진이에게 첫물 앵두를 선물하고 사라졌다.

---

19) 이승훈, 앞의 책, 61쪽.

20) 중국 유가 5경 중 하나이며 공자가 편찬한 『예기(禮記)』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 단오 풍습은 중국에서 전해져 온 것으로 성리학과 유교 입문서 중 하나인 『예기』에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음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다. 『황진이』에 등장하는 『대학』, 『중용』은 이 책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 정월편』, 국립민속박물관, 2004 참조.

01□□□_01□□□ 12. 7. 19. □□ 7:25 Page 27

이 때 앵두는 놈이에게 신과 다름없는 존재였던 진이에게 천신되듯 전달된다. 별다른 인사 없이 떠나면서도 그는 진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려 하고, 이에 마지막 인사를 담아 앵두를 건넨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 놈이가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첫물 앵두 또한 재차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씨가 류수아문에 들어가자 인차…… 놈이가 괴똥이 편에 아씨께 첫물 앵두를 보냈습디다."

(드디여 놈이가 나타났구나.)

은근히 기다리고 있던 소식을 듣게 된 기쁨이라기보다 진이의 가슴속에 오래동안 켕겨 있던 근심이 풀어지는 안도감 비슷한 것이였다. 5년 전 기둥서방 노릇 몇 달 만에 괴똥이가 대필한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자취를 감추었던 놈이가 다시 형적을 드러낸 것이다.

— 284쪽(1)

5년 동안 사라져 있다가 다시 나타나면서 놈이는 첫물 앵두와 함께 그 존재를 드러낸다. 처음 첫물 앵두가 작품 속에 등장했을 때도 그러하지만 진이는 이미 앵두와 놈이를 동일시하고 있다. 때문에 누가 보낸 것인지 딱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그를 떠올렸던 것이다. 그가 사라지기 전에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앵두를 선물하고 떠났음은 물론이다. 이후 놈이가 만지장서를 통해 직접 앵두에 담긴 뜻을 밝히게 된다.

다음날 새벽이였다. 진이는 날 밝을 무렵 툇마루에 나갔다가 첫물 앵두를 담은 바구니와 함께 앵두 우에 올려놓은 놈이의 만지장서를 모았다. 틀림없이 괴똥이의 대필인 언문 편지였다. 진이는 그 편지를 읽고서야 비로소 그동안 놈이가 가슴속에 품고만 있던 수수께끼의 전모를 알게 되었으며 그가 자기 곁을 떠나려는 내심의 까닭을 알게 되었다.

01□□□_01□□□ 12. 7. 19. □□ 7:25 Page 28

그날 한낮, 밖에 나갔던 할멈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달려 들어왔다. 간밤 류수아문 안제 있는 형방 비장의 처소에 누군가 뛰여들어 비장을 묶어놓은 다음은 더는 사내 구실을 못하도록 병신을 만들어놓고 달아났다는 것이였다.

진이는 그날 이후로 놈이를 다시 보지 못했다.

— 297쪽(1)

기생이 된 진이와 기둥서방이 된 놈이의 비극적인 관계는 진이의 신분이 추락했음에도 변하지 않는다. 진이가 기생이 된 첫 해 수리날 새벽, 진이는 허참 중에 형방비장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서로 주먹이 오간 후에 진이가 기절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날 새벽 놈이는 형방비장이 다시는 사내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사라졌다. 이를테면 진이의 복수를 한 것이자, 자신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해 표출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후 놈이는 앵두와 언문 편지를 놓고 사라진다. 이때 앵두는 오랜 기간 동안 또다시 모습을 감추겠다는 마지막 인사이자 징표가 된다. 그러나 그의 편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 앵두의 의미는 유추할 수 있었던 것보다 깊은 상징성을 내포한다.

그래서 저는 댁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훌륭한 인물이 되여 아씨 앞에 나타나리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철없는 생각에 어떻게 되는 것이 훌륭한 인물로 되는 것인지는 잘 몰라라 어쨌든 큰사랑의 진사님이나 안방마님이 저를 반겨 맞아다가 아씨 곁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수리날 전날 제가 아씨가 거처하시던 별당 퇴마루에 가져다놓은 첫물 앵두는 수리날 선물이라기보다 아씨께 제 마음속의 굳은 결심을 알리는 신표와 같은 것이였습니다.

— 299쪽(1)

01□□□_01□□□ 12. 7. 19. □□ 7:25 Page 29

놈이가 어린 시절 처음으로 집을 뛰쳐나갔을 때는 진이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결심은 앵두로 응축되어 전달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진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대신 이를 대변해 표현한 것이 앵두였던 것이다. 새빨간 앵두에는 놈이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으나 진이는 오랜 시간동안 이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단순하게 선물이나, 인사 정도로 치부하고 말았다.

이어지는 편지에서는 그가 또 다시 앵두를 남기고 떠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더는 이대로 참지 못하겠습니다. 아씨, 저도 사람입니다. 살과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불러온 응당한 화라는 것을 알지만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그대로 겪느니 차라리 릉지처참을 당하는 편을 택하렵니다. 참으로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간곡히 바라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아씨의 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어린 시절 집을 떠나던 그때처럼 수리날 선물로 첫물 앵두를 아씨께 바치니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아씨께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저의 마지막 인사가 되는가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 —304쪽(1)

놈이는 사실 자신이 진이의 혼례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출생의 비밀을 폭로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또한 이로 인해 파혼과 신분하락을 잇따라 경험하게 된 진이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고, 용서를 비는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앵두를 선물하고 떠난다고 밝힌다. 또한 죽음보다도 못한 기둥서방으로써의 고통스런 삶을 차마 견뎌내지 못하겠음을 토로한다.

이 때 놈이가 남긴 앵두에는 이별선물, 용서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녀를 사랑하는 감정이 응축되어 녹아든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바 있는 무르기 쉬운 앵두의 특성처럼 상처 받아 허물어지기 쉬운 놈이의 마음까지도 상징하게 되는 것이다.

01□□□_01□□□ 12. 7. 19. □□ 7:25 Page 30

『황진이』 속 '앵두'는 단순한 과일의 의미를 넘어선다. 진이와 놈이의 사랑의 매개체로 분한 앵두는 비밀을 담고 있기도 하고, 진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두 인물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담에 그치지 않는다. 순수하면서도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작품이 비판하고 있는 신분제도와 허례허식을 전면으로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첫물 앵두'는 작품의 주제와 내용이 가장 함축적으로 담겨진 상징물로 분하게 되는 것이다.

4. 결론 : 상징과 통일문학으로의 가능성

비록 작품에 드러난 상징 중 일부이지만, 거론된 돌과 앵두만으로도 수많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단지 배경이나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도 있었으나 상징연구에 의미를 더해주는 대상 또한 다양했다.

마방집 괴석을 통해서는 토속신앙 중 하나인 업(業)신앙을 찾아볼 수 있었다. 뱀이나 구렁이 뿐 아니라 돌 자체에는 한 가정이나 마을의 운명을 상징하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다. "전라남도 고흥군과 석촌리 앞의 자연석, 경상북도 포항시 의창면 죽천리의 용두암 등은 그 방향과 기울기에 따라 마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설이 전해진다. 이와 비슷하게는 바위의 형상에 따라 마을의 빈부가 결정된다고 전해지고 있는 영주의 뚜껑바위와 위치에 따라 마을 내의 빈부가 달라진다고 전해지는 고양이귀 모양 바위가 있다. 안동에 있는 거북바위는 머리의 방향에 따라 빈부가 달라진다고 믿기도 한다."[21] 비단 마방집 괴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전해지는 돌에 관련한 이야기는 문학은 물론 상징을 연구하는데 있어 다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

21) 한국학중앙연구원, 앞의 책, 참조.

01□□□_01□□□ 12. 7. 19. □□ 7:25 Page 31

일문학을 함께 연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산대바위 역시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바위설화 등과 함께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속학적 사료이기도 하지만, 관련한 사건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분류해 문학과 연관 지어 연구해봄직 하다. 사랑을 이야기하다 바위가 된 인물들에 대한 전설이나 설화 등도 이와 함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천의 돌다리와 팔각정의 주춧돌의 경우처럼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위대한 유산이었으나 현재는 전혀 다른 쓰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찾아본다면 비슷한 실 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화문에 화재가 난 후 불에 타고 남은 자재들이 다양한 곳으로 흘러들어 예상치 못하게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와 유사한 접근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연구는 물론 창작물의 배경과 사건이 될 법하기도 하다.

하마석과 효자정문의 경우에는 개성에 관련 장소가 실제로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연구 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로 쓰일 수는 없다. 하지만 남북 모두 이와 유사한 유적지가 남아있다. 유적지와 관련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효자비, 열녀문 등과 함께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간을 찾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남북의 경계가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자연물을 연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일한 역사와 유적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면 통일문학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앵두의 경우에는 단오 등 우리 풍속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의 역사소설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찾아보는 일은 쉽다. 그만큼 다양한 연구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북한소설인 홍석중의『황진이』를 상징과 모티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보았다. 역사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남북의 분단이나 이

01□□□_01□□□ 12. 7. 19. □□ 7:25 Page 32

산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사상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남북한문학의 대부분은 각각의 사상을 재차 확인하고 분단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역사소설과 상징연구는 최근의 반백년 역사를 초월해 오히려 서로가 한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비단 역사소설에 국한하지 않고서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물, 물건들에는 제각각의 이야기와 정서가 숨어있다. 이 중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공유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 민족만이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무궁무진하다. 또한 이를 작품으로 담아낸 경우를 찾아보는 일도 어렵지 않다. 때문에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분명 앞으로의 통일문학을 논할 때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문학 연구 전체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시된 다양한 연구법과 관련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01□□□_01□□□ 12. 7. 19. □□ 7:25 Page 33

참고문헌

기본자료

홍석중,『황진이』, 대훈닷컴, 2004.

참고자료

국립민속박물관,『한국세시풍속사전 : 정월편』, 국립민속박물관, 2004.

김경연,「황진이의 재발견, 그 탈마법화의 시도들」,『살아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김재용,「운우의 꿈을 깨니 일장춘몽이라……」,『황진이 2』, 대훈닷컴, 2004.

김흥섭,『소설창작의 기교』, 평양: 문예출판사, 1991.

민충환,「『임꺽정』과 홍석중 소설에 나타난 우리 말」,『살아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박미현,「홍석중의 역사소설『황진이』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태상,「생동한 인물성격 창조와 작가의 창발성」,『황진이 1』, 대훈닷컴, 2004.

오태호,「홍석중의『황진이』에 나타난 낭만성 고찰」,『살아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이상숙,「역사소설 작가로서 홍석중」,『살아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이승훈,『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사, 2009.

잭 트레시더, 김병화,『상징 이야기』, 도솔출판사, 2007.

전현래,「'황진이'소재 역사소설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01□□□_01□□□ 12. 7. 19. □□ 7:25 Page 34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s in Hwayng Jin-Yi by Hong Suk-Joong

—focusing on the stone and cherries

Kim, Mi Na

There are several cases which can contribute to examine literature on unification even though they are not written in the background prior to the division of country or not the historical novels. This study reviews the previous studies on Hwang Jin-Yi by Hong Suk-Joong and examines on the symbols appeared in the novel as a new means to interpret the work as literature on unification: focusing on the symbols and motives, the stone and cherries, which appear several times in the work.

There are several stones in the work, and each of them have symbolic meanings beyond primary meanings. The oddly shaped stone from a stableman's house reflects the karma which bo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ve as folk religion. Also the stone uses the space effectively to gain probability and completeness, which contributes to high literary value of the work. Sandae Rock stands for the encounter and affection. It maintains the general symbolic meaning of the rock, and by adding another meaning to it, the symbolic power earns more security. The stone bridges at the brook and Palgakjeong play the role in criticizing the time and satirizing the

01□□□_01□□□ 12. 7. 19. □□ 7:25 Page 35

social conditions. This proves that Hwang Jin-Yi not just focuses on simply reproducing the customes.

The cherries stands for beyond a simple fruit. The cherries, a love messanger from Jin-yi and Nom-Yi, contain secrets or deliver truths. These two characters' love is not just a simple one, but function as an confrontation to the status system and empty formalities, which the work criticizes. Therefore, the cherries are the most connotative symbol with the theme and content of the work.

There are several different stories and emotions in the nature and items around us beyond the category of historical novel. These symbols cannot be easily shared with other countries, which only have their special meanings in our country. Also, it is not so difficult to find such symbolic cases in the literature. Therefore, I expect that steady research on such context will contribute to the whole literature studies in Korea as well as being a good foundation to the researches on the unification literature.

주제어 : 황진이(Hwang Jin-Yi), 홍석중(Hong Suk-Joong), 상징(symbol), 모티프(motif), 북한문학(North Korean literature), 통일문학(literature on unification), 역사소설(historical novel), 돌(stone), 앵두(cherries)

논문 접수일 2012. 05. 04.
논문 심사일 2012. 05. 25.
게재 확정일 2012. 06. 08.